스트레스성 폭식의 신앙

(시편 35:1~28)

1.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2.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3.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4.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5.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6.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7.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8.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9.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이여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10.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스트레스성 폭식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스트레스성 폭식의 신앙'

요즘 스트레스와 연관된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이제까지 스트레스는 독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으나 약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생리적인 사실이 근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옥시토신이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포옹의 호르몬 혹은 신뢰의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행복한 감정에 빠져서 데이트를 할 때에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혹은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에도 옥시토신은 분비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압도하고 억누르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려움 불안 위기감 질투 시기 등 부정적 감정의 종합비타민과 같은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지고 호흡과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근육이 경직됩니다. 불안감에 의해서 신체와 마음이 대처하는 전형적인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그런데 맞선을 보는 젊은이들에게 이 상태를 적용해봅니다. 남녀가 서로를 보고 첫눈에 반했을 때에 손에 땀이 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근육이 경직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나 맞선 자리에서 기분이 들뜰 때에나 똑같이 옥시토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이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임과 동시에 신뢰와 사랑의 호르몬이 되기 때문에 잘 대처할 수만 있다면 스트레스는 독이 아닌 약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진짜 독은 스트레스를 해롭게 여기는 우리의 확신과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어떤 여자 분들은 멀쩡한 옷들을 막 빨래를 하면서 풀기도 합니다. 또는 양푼에 밥을 넣고 김치나 나물을 다 꺼내서 고추장에 비벼서 막 폭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먹지도 않던 술을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성 폭식 폭음 빨래까지도 옥시토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스트레스성 폭식의 신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신앙과 연관 짓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폭식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스트레스가 과도한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은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흡입하고 싶어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믿음과 모종의 연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던 10년 어간에 환란으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억울함을 한탄하는 시입니다. 또한 사울과 그 추종자들에 대한 부당함을 비탄어린 심정으로 호소하며 그들의 세력이 몰락하기를 바라는 저주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도 없이 부당한 핍박을 받으며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했던 억울함이 시 전체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느 시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악감정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눈에 띕니다. 이 시를 액면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데반집사님 베드로 바울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거나 죽음의 현장에서 오히려 죽이는 자들을 축복하고 용서했던 기도를 한 것을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을 일관성 있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 자체는 인지상정으로 우리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다윗이 이런 개인적 악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서슴없이 썼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의 일화를 연관시켜서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굴에 숨었을 때에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상 24장 4~6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벰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라고 하며 사울을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사울이 하길라 산에 진치고 다윗을 추격할 때의 일이 나옵니다. 밤이 깊었을 때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적진에 들어갔더니 사울과 군대장관 아브넬을 비롯한 모든 병사들이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8~10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오늘 시편을 연결시켜보면 본문에서 기가 막히는 표현들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고, 19절을 보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에게도 사울 왕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과 억울함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시 전편에 걸쳐서 억울함과 분노와 한탄을 호소할 뿐 감정에 따라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희한한 점입니다.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다윗에게 원망과 적대감과 분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며 여호와께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신앙고백적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라고 표현했듯이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나서 죽게 해 달라’는 기도는 차마 못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든 일어나면 ‘그것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고소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소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죽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회사에 부도가 나서 거리에 나앉게 해달라고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말과는 달리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호와여 내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내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다투고 있는 중에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에 나의 대적을 멸망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한 발 뒤로 빠져서 여호와께서만 싸우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망만 다니고 있던 실제 상황이 증명하듯이 다윗 스스로는 싸우지 않았지만 마음에 스트레스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살려주었다고 해서 이런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묶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행동을 취하면 좋겠지만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할 뿐, 사울에 대한 그 어떤 적대적인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복음적 신앙인의 모습니다.
복음적 신앙인은 성전에서 오늘도 아침저녁으로 죽어가는 어린양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사람입니다. 번제단에서 죽는 양이 이 세상 속에서의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어린양 되신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며 옆구리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나라고 여기는 것이 복음 신앙입니다.
그렇게 여긴다고 해서 내 마음 속에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공연히 핍박하는 직장 상사들을 향해서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식 자랑을 하며 나를 깔보는 친척들을 보면서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지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라고 하며 자신은 전혀 싸움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어떤 억울한 핍박을 받아서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생길지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운명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동성은 신앙의 스트레스성 폭식과 폭음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세 번에 걸쳐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세 부분이 끝날 때마다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에서 원수인 사울이 '급살을 맞게 해 달라'

고 기도하고는 9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이여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에서는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라고 말하고 18절에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6절까지도 마찬가지로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을 호소한 후에 28절에서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라는 찬양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 왕으로 인한 억울함과 분노가 생겨서 당장이라도 사울 왕이 급살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성전에서 죽어가는 상번제의 어린양임을 기억합니다. 상번제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드려지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상번제의 어린양이 세상 속에 사는 나 자신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양처럼 죽는다면 스트레스가 쌓일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양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달려서 꼼짝하지 못한다고 여길지라도 마음에서 스트레스성 적개심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여호와를 먹는 폭식으로 풀어냅니다. 원수로 인해서 분노하고 억울한 감정에 한이 맺혀서 당장이라도 사울이 급살을 당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다가 집에 와서 밥을 막 비벼서 폭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막 먹어댔던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나타나는 옥시토신은 누군가를 포옹하고 사랑하고픈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당해서 공허해진 마음을 무엇으로라도 채우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직장 상사들에게 단 한 마디도 억울한 심정과 분한 마음을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포기함을 운명으로 팔자로 생각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다윗의 능동성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가 싸우시고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대처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달라고 세상에 대한 능동성을 모두 포기한 뒤에 그 능동성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찬송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을 기뻐한다고 했지만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구원은 곧 마음이 채워짐을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나님을 폭식함으로 풀었습니다. 사울로 인해 생긴 마음의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옥시토신의 전환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 전환을 삶에서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기를 바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악감정을 드러냈지만 그에 반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트레스의 방향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쪽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10년간의 스트레스를 하나님 폭식으로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에게 구박받고 집에 와서 밥을 비벼 폭식을 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폭음을 하며 견뎌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음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하나님을 폭식하고 하나님을 폭음하면서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폭음과 폭식은 곧 과도하게 집중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5~56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을 과도하게 폭음하고 폭식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돈이 안 벌려서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돈을 잘 벌기 위한 방법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폭음하고 폭식해야 합니다. 쇠고기를 먹으려면 소가 죽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의 음료와 나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잔뜩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고 말썽만 피우는 망나니일 때에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를 능동적으로 자녀에게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듯이 주님을 폭식함으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있음은 곧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주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언제나 하나님을 잡수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먹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곧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하늘을 폭식하는 것입니다. 폭식하면 만족해서 ‘이제 좀 살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서 받은 모든 스트레스를 하늘 폭식으로 해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 때에 결국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비참한 죽음을 죽은 것처럼,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의도에 따라서 인도되어 갈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다윗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인정하는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결핍은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을 폭식함으로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하

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친척들을 만나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명절이라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대적하거나 대항하려 하지 마십시오. 친척들이 주는 스트레스를 하늘 폭식으로 견뎌내시면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며 살지라도 내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폭식하고 하나님을 폭음하면서 견디게 하셔서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